



VIP Report (제22호)

1994.11.18.

현대경제사회연구원

Tel 784-6544, Fax 784-6583

HRI 動向 分析 報告

<目 次>

I. 動向과 展望	
1. 國際金利의 最近 動向과 展望	1
2. 3/4分期 産業 活動 內容과 向後 景氣 展望	3
3. 中間 選舉 以後의 美 通商 政策 方向	5
II. 主要 懸案	
1. 「보고르 宣言」의 意義와 課題	8
2. 地域 經濟 活性化와 建設業의 展望	10
3. 土曜日 休務制와 生産性 向上	12
III. 政策 課題	
1. 南北經協 活性化 措置 評價 및 展望	14
2. 經濟 關聯法 改定이 企業에 미치는 豫想 效果	16
<用語 解説>	19
<主要 統計表>	21

現代經濟社會研究院

I. 動向과 展望

1. 國際金利의 最近 動向과 展望

- 최근 國際金利는 세계적인 景氣 回復勢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物價 不安으로 연초 이후의 上昇勢를 持續
- 미국 聯邦準備理事會(FRB)는 11월 15일의 定期會議에서 올해 6번째로 政策 金利를 引上
- 國際金利의 상승은 變動 金利로 海外 資金을 조달한 국내기업에게 추가적인 金融 費用 負擔을 초래, 이에 대한 對應策 마련이 時急

○ 動向

- 국제금리는 세계 景氣 回復에 따른 資金 需要 증가와 物價 不安 우려로 연초 이래의 上昇勢 지속
- 美國 금리는 景氣 回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對處하기 위한 FRB의 올해 6차례에 걸친 政策 金利 引上에 의해 長·短期 金利가 모두 上昇 趨勢시현
 - 11월 15일 FRB는 연방기금 金利를 現行 4.75%에서 5.50%(올해 6번째)로, 재할인율은 4.0%에서 4.75%(올해 3번째)로 각각 0.75%p 인상
 - 11월 14일에 聯邦基金 金利와 3개월물 財務省債券 金利는 각각 5.50%, 5.33%로 전년말에 비해 각각 2.87%p, 2.32%p 상승
 - 同日에 30년물 財務省債券 金利는 8.08%로 전년말 대비 1.73%p 상승
- 日本의 長期 金利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와 新規 國債 公賣 등으로 연초 이래의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短期 金利는 일본은행의 경기 회복을 위한 金利 下落 誘導 政策에 따라 소폭 상승을 보임
 - 10년물 國債 金利는 11월 11일에 4.67%로 전년말 대비 1.55%p 상승
 - 3개월물 CD 金利는 同日에 2.27%로 전년말 대비 0.19%p의 소폭 상승
- 獨逸의 長期 金利는 경기의 빠른 회복세로 연초 이래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短期 金利는 낮은 物價 水準과 마르크貨의 強勢 基調에 힘입어 92년말 이래의 하락 추세를 유지
 - 10년물 國債 金利는 11월 11일에 7.50%로 전년말 대비 1.71%p 상승
 - 3개월물 콜 金利는 同日에 5.15%로 전년말 대비 1.02%p 하락

○ 展望

- 독일을 제외한 美·日의 長·短期 金利는 上昇勢 지속 전망

- 美國의 장·단기 금리는 향후 계속 上昇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
 - 95년의 政策 金利 인상 예상, 달러 弱勢, 물가 불안, 소비·투자 수요 증가 등이 金利 상승 전망의 主要因으로 작용
- 日本의 장·단기 금리는 小幅度 上昇할 것으로 전망
 - 강한 景氣 回復勢로 인한 金利 上昇 要因(경기 회복에 의한 소비·투자 자금 수요 증가)이 金利 下落 要因(엔高에 의한 채권 수요의 증가, 물가의 안정세와 일본은행의 엔高 沮止를 위한 金利 하락 정책)보다 클 것으로 예상
- 獨逸의 장·단기 금리는 小幅度 下落할 것으로 전망
 - 마르크貨의 강세와 물가 안정으로 인한 채권 수요 증가 등 金利 하락 要因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主要國 金利 動向과 展望 >

(단위: %)

	미 국		일 본		독 일	
	3개월물 국채	30년물 국채	3개월물 CD	10년물 국채	3개월물 콜	10년물 국채
94년 1/4분기	3.33	6.54	2.22	3.63	6.12	6.10
2/4분기	3.99	7.34	2.19	4.01	5.43	6.84
3/4분기	4.47	7.58	2.25	4.58	4.92	7.25
94년 4/4 (전망)	5.3	8.1	2.4	5.2	4.9	7.4
95년 1/4 (전망)	5.5	8.2	2.5	5.3	4.7	7.2

자료 : IMF, WEFA, 일본은행 등

- 國際金利의 상승 추세로 變動 金利로 海外 資金을 차입한 國內企業들의 金融費用 負擔이 커지고 있음
 - 국제금리 상승으로 인한 追加 利子 負擔은 대략 8.6억 달러로 推算
 - 이는 우리나라의 94년 8월말 현재 總外債 規模(海外證券 총발행액 포함)인 500.4억 달러중 변동 금리로 차입한 약 350.3억 달러를 94년 11월 14일 현재 LIBOR 金利(US\$ 3개월물)의 전년말 대비 상승폭인 2.44%p와 곱한 것임
 - 국내기업들은 해외 자금 차입시에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징(hedging) 技法의 사용이 적어서 국제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국내기업들이 국제금리 상승 추세에 의한 外資 調達 金融 費用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先物市場을 통한 先渡金利(forward rate)·金利先物(interest rate futures)·金利옵션(interest rate option)과 金融市場을 통한 金利스왑(interest rate swap) 등 金利 危險 헤징 技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用語 解説> 참조)

(전 상 준)

2. 3/4分期 産業 活動 內容과 向後 景氣 展望

- 94年 3/4분기중 景氣는 꾸준한 上昇 趨勢를 시현
- 경기 상승세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元貨 切上을 용인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의문시됨
- 94년 4/4분기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나 指標上의 증가율은 다소 鈍化될 전망

- 元高, 동남아 지역의 개발 수요 증가,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設備投資 增加 등으로 93년 1월 이후의 景氣 擴張勢 持續

- 3/4분기 産業 活動은 중화학공업의 호조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
- 산업 생산은 중화학공업과 음식료품의 호조로 전년 동기비 8.9% 증가
- 도소매 판매는 8.1%,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0.2%의 높은 증가율 기록
- 국내 기계 수주는 32.2%, 기계류 수입 허가는 81.6%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景氣 내용에는 몇가지 問題點이 있음

- 景氣 兩極化의 여파로 어음 부도율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무역수지가 계속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음
- 9월중 실업률이 2.1%에 불과하여 향후 인력난이 가속화될 전망

< 어음 부도율 추이 >

	(%)					
	'93.9	'94.5	6	7	8	9
전국 어음 부도율	0.11	0.17	0.17	0.16	0.20	0.16
서울 어음 부도율	0.07	0.11	0.10	0.10	0.12	0.10

< 93년과 94년의 貿易收支와 실업률 비교 >

(통관 기준, 백만달러, %)

	年度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貿易收支 (通關基準)	93년(누적)	-1,785.9	-2,376.3	-2,769.0	-1,564.4
	94년(누적)	-2,655.7	-3,556.9	-5,663.3	-
失業率	93년	3.2	2.8	2.6	2.6
	94년	3.0	2.4	2.2	-

- 정부는 경기 활황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安定化 政策 추진
 - 정부는 통화량 긴축, 공산품 가격 하락 유도, 추곡 수매가 동결 등을 통하여 안정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음
 - 원화 절상을 용인하여 국내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자 함
- 원貨 切上의 용인은 국내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통화량의 긴축은 금리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음
 -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통화 관리를 어렵게 함
 - 수출을 저해하고 수입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 있음
- 원貨 切上의 용인을 통한 輸入 價格의 하락이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期待는 難望
 - 輸入 消費財는 고가 사치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이 비탄력적이므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지는 의문
 - 원화 절상을 통한 수입 자본재와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공산품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정부의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단가 하락에 의한 공산품 가격 하락은 그 효과가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사이의 상관 관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소비자물가 증가 억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 94년 4/4분기와 95년에는 경기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成長勢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94년 4/4분기와 95년의 경제 성장률은 수치상 다소 둔화될 전망
 - 지자체 실시와 선거에 따른 지방 경제의 활성화, 경기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세 확산 등도 경기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다만 원화 절상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폭 확대가 예상되고 經濟 成長率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증가율은 기준 연도인 94년의 경기 호조로 다소 둔화될 것이며, 景氣 頂點은 95년 4/4분기 혹은 96년 1/4분기로 예상됨

(전 민 규)

3. 中間 選舉 以後의 美 通商 政策 方向

- 최근 美國의 通商 政策의 목표
 - UR의 議會 批准 통과를 完了하여 WTO 체제를 출범
 - APEC 회담에서 단계별 무역자유화의 시한 설정
 - NAFTA의 대상 지역을 南美까지 확대
- 中間 選舉가 미국의 對外 通商 政策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은 對外 通商 政策에 있어서 세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음

-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회 비준

- 하원에서는 11월 29일, 상원에서는 12월 1일에 표결될 예정임
- 表決 時期가 새로 선출된 내년 의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내에 美 의회를 통과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APEC에서의 貿易自由化

- APEC의 무역자유화 대상에는 UR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金融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과 農産物, 知的 財産權 등이 포함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 회담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최종 목표 연도를 2020년으로 확정

- NAFTA 대상 지역 南美로의 확대

- 12월 9일부터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美洲 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NAFTA를 南美로 확대시키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간 선거 이후의 通商 政策의 變化

- 통상 정책의 基調 不變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共和黨의 상하원 장악은 클린턴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
- 그러나 공화당의 경제 정책의 기조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共和黨이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클린턴 行政府는 교역 상대국의 개방 확대를 통한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미 통상 정책 결정 3대 요소는 의회, 행정부, 민간 이익 단체
- 의회와 민간 부문이 정책의 요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부가 실제 정책의 공급자의 기능을 담당함(통상 정책의 결정 구조는 <참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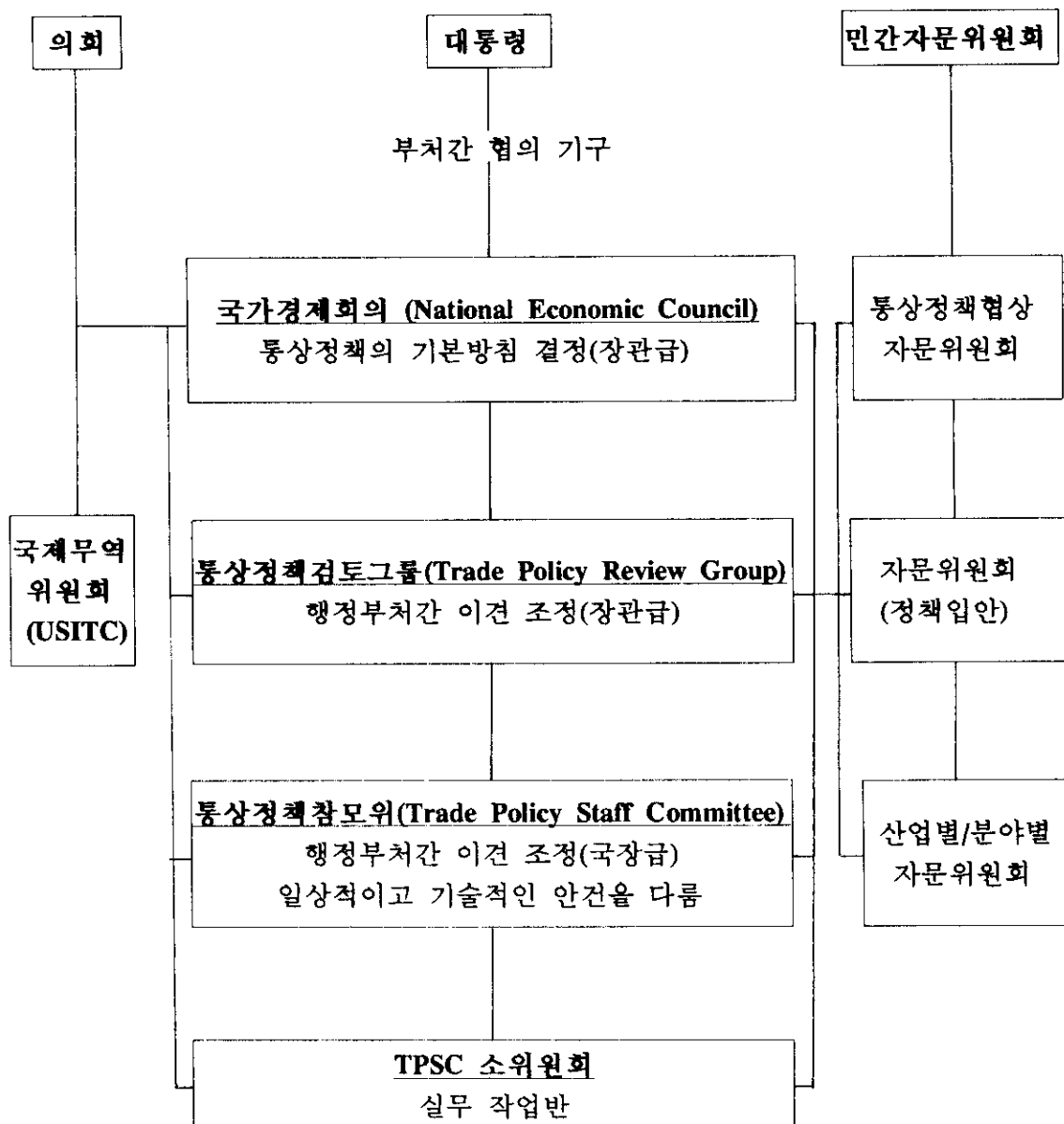
〈 공화당과 민주당의 經濟 通商 政策 比較 〉

부 문	共 和 黨	民 主 黨
黨 性 格	保守的	進步的
슈퍼 301조	안보 관계 고려하여 신중	미국기업 이익 최우선
UR 협정 이행	원칙은 찬성, 각론은 신중	적극적 찬성
NAFTA	원론적 지지	대상 지역 범위 확대 노력
APEC	원칙은 찬성이나 소극적 자세	적극적인 주도
국내 경제	減稅를 통한 공급 능력 확충	增稅를 통한 부의 분배

- 슈퍼 301조는 復活되지 않을 전망이다
- 민주당의 입장 : 미국의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안보 등의 희생은 감수
- 공화당의 입장 : 안보와 경제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슈퍼 301조도 이를 고려하여 자제되어야 함
- 그동안 슈퍼 301조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通商 壓力 強化 持續
- 공화당은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외국의 공정 무역 위반 사항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 초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제시 헬름스의 외교 분과 위원장 취임이 현실화될 경우, 특정 국가 특히 日本을 상대로 하는 통상 압력 입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그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게 될 것임
- 기타 통상 정책
- 자동차와 금융 시장 개방, 지적 재산권의 보호 등 기존 韓美間의 통상 현안에 대한 압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인권, 환경, 노동 문제를 통상 정책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共和黨의 반대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참 고>

- 미 통상 정책의 결정 구조



(이 보 성)